

제13권 10호

2023. 5. 8~2023. 5. 21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금리 엇박자와 은행의 위험관리   |
| 이슈분석    | 금융상품 방문판매 채널의 변화 방향  |
| 금융경영브리프 | 유럽, 디지털플랫폼 기반 ETF 투자 확산<br>애플 예금계좌, 금융산업 지각변동 신호탄?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은행권 불안 지속과 연준의 인상 중단 시사<br>외 환 : 美 통화긴축에서 재정·금융 불안으로 초점 이동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김종현(jh.kim\_)

#### 논단

교수 강경훈

#### 이슈분석

연구위원 정승희(smiley77)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박지홍(jhpark525)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 금융지표

연구위원 진옥희(okheejin)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금리 엇박자와 은행의 위험관리
- 04 **이슈분석** 금융상품 방문판매 채널의 변화 방향
- 08 **금융경영브리프** 유럽, 디지털플랫폼 기반 ETF 투자 확산  
애플 예금계좌, 금융산업 지각변동 신호탄?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은행권 불안 지속과 연준의 인상 중단 시사  
외 환 : 美 통화긴축에서 재정·금융 불안으로 초점 이동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금리 엇박자와 은행의 위험관리\*

강 경 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 및 시장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의 금리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은행 및 정책당국의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 및 시장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엇박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는 작년 초까지 1.25%에 머물렀으나, 이후 4월 금통위부터 연속 7차례 인상되면서 3.5%까지 올랐다.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미국이 지난해 4차례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발표하는 등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 :: 예금·대출금리의 하락세

반면에 예금금리는 최근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3.0%였던 지난해 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5.0%를 넘었었는데 지난 1월 기준금리가 연 3.50%로 상승한 이후에는 오히려 4.0% 아래로 떨어졌다. 4월 2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총 41개 중 12개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3.5%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주요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4월 17일 기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모두 하단이 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8월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다수의 언론 보도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수신 경쟁 자제를 요청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 것을 들고 있다.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던 가운데 감독당국의 압박은 은행권이 스스로 대출금리를 내리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셈이다.

예금·대출금리의 인하 압력과 함께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대출금리 및 일부 시장금리는 하락세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시장금리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CD금리 91일물은 3.52%로 기준금리(3.5%)와 큰 차이가 없다. 통안채 91일물은 3.25%로 기준금리보다 0.25%포인트 가량 낮으며 국고채 1년물 역시 3.28%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 ∴ 금리 엇박자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금리 엇박자에 따라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이처럼 예금·대출금리와 자금시장의 단기금리가 낮아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물가 제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화정책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금리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금리경로는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와 은행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는 과정인데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가 이미 반대 방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에도 투자자들이 향후 기준금리의 인하 전환을 기대함에 따라 장기금리가 낮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통안채 91일물 등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이 환율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환율경로 역시 시장금리 변동을 거쳐 발휘되므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작아 환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기대경로는 경제주체들의 미래 통화정책, 경기전망 및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과도하다”며 높은 기준금리 유지의 뜻을 여러 번 밝혔음에도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기대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증이다. 또한 통화정책이 수량변수인 은행대출을 거쳐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신용경로 역시 대출금리의 하락세로 인해 당초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금리의 엇갈린 움직임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당국은 아직까지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통화당국이 의도한 긴축효과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나 이런 쪽에서 원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제품 가격에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면서 통화정책과 금융당국의 정책이 엇박자라는 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 ❖ 금리 움직임과 은행의 위험관리

금리의 움직임은 통화정책의 유효성뿐 아니라 은행의 위험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흔히 은행의 주요 위험으로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 위험을 손꼽는다. 이 위험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얼마 전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 금리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비화된 것이다. 즉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 자산부문의 손실이 커지자 이를 우려한 예금자들이 예금인출에 나서게 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과거 저금리 시절 공격적으로 늘린 자산부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사례에 비추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누그러뜨리는 감독당국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의 전개 양상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예금·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 고수익을 좇는 예금자들의 인출이 급증할 수 있다. 현재 시장금리는 미래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가 바뀌면 언제든지 빠르게 오를 수 있다. 특히 한미 간 정책금리 차이가 이미 1.75%p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기조가 확인되면 국내 시장금리도 급격한 오름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같이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낮은 금리로 깔아놓은 대출자산이 많으면 예금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금리위험이 유동성위험으로 전이되는 또 다른 패턴이다.

더욱이 시장금리 상승은 부동산PF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의 위험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위험이 함께 집중되는 파괴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대의 금융시스템은 크고 작은 금융기관들이 복잡다단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의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위험 시나리오는 향후 국내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이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는 경우 괜한 걱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는 원래 온갖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위험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외적이나 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향후 미국 및 국내 금리 상승세 또는 고금리 지속의 경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은행의 신용위험, 금리위험, 유동성 위험은 서로 긴밀히 연결

은행의 예금·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시장금리 급등이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도

## 금융상품 방문판매 채널의 변화 방향

정승희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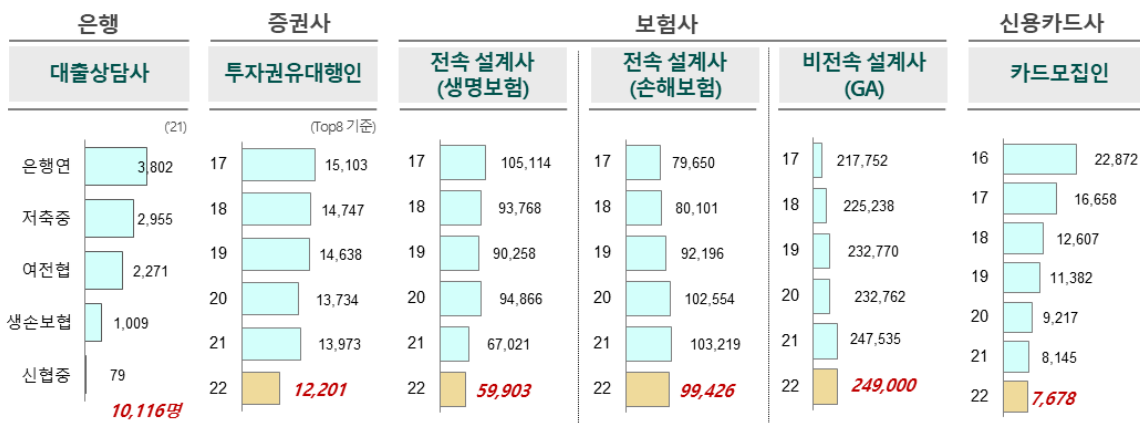
2022년 말 방문판매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추세로, 향후 영업점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령층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방문판매 채널의 활용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는 GA(General Agency), 투자자문사 등 비전속 채널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는 방문판매 채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더불어 관련 제도 정비에 대응하여 내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금융회사의 방문판매 채널은 영업점 외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채널로서 주로 보험사를 중심으로 활성화

- 국내 금융회사의 방문판매(ODS : Out-door Sales) 채널은 대출상담사,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금융상품별로 다양
  - 각 업권에서 법령상 자격요건을 취득한 후 등록,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영업
- 방문판매 채널은 소속 금융기관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채널과 제휴된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비전속 채널로 구분
- 금융상품 방문판매 채널 중에서는 보험설계사 조직의 규모가 가장 크며 지점이 핵심 채널인 은행, 증권사의 방문판매 조직 규모는 크지 않은 편
  - 보험설계사가 약 41만 명인 데 반해 대출모집인 및 투자권유대행인은 1만 명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

■ 업권별 방문판매 채널 현황

(단위 : 명)



주 : 대출상담사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 포함, 투권인은 등록 인원이 아닌 영업 실적 보유 인원 기준, 카드모집인은 7개 전업카드사 기준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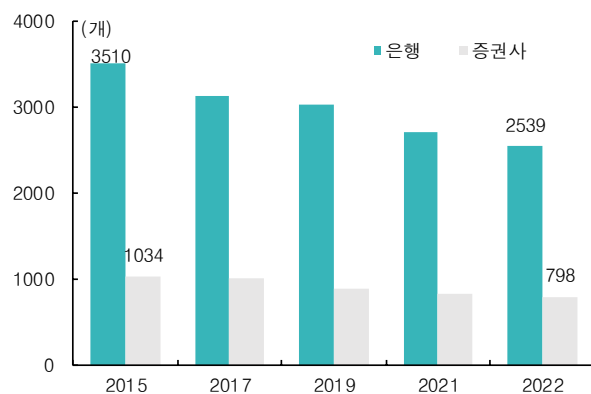
■ 2022년 말 방문판매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상품 방문판매 채널의 변화가 본격화

- 지난 '1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21년 11월 국회를 통과,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2년 말부터 본격 시행
- 법 개정으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대상이 기존 보장성 상품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 투자성 상품의 방문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에는 방문판매 후 14일 내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허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수익률 변동이 큰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부담 해소
- 단, 방문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소법이 강화되고 관련 모범규준이 제정되면서 초반에는 오히려 기존 영업에 부정적 영향
  - 금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성상품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범위를 확대<sup>2)</sup>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각 방문판매모범규준을 제정하면서 사전안내 의무화 등 판매 프로세스가 대폭 강화되면서 영업적 제약이 발생

■ 영업점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령층 대상 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향후 금융상품 방문판매 채널의 활용도는 확대될 전망

- 은행 및 증권사의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영업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채널이 활성화
  - 4대 은행의 지점 수는 '15년 3,510개에서 '22년 2,539개로 대폭 축소
  - 증권사 국내 지점 수 또한 '15년 1,034개에서 '22년 798개로 축소

■ 금융권 점포 축소 추이



주 : 4대 시중은행 기준, 증권사 국내 지점 기준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연령대별 금융서비스 이용 시 선호하는 접근방식

(%)	모바일	인터넷	지점, ATM, 실물카드 등
전체	41.2	2.6	56.2
20대	64.2	2.4	33.4
30대	65.0	4.1	30.9
40대	53.2	3.2	43.5
50대	36.7	2.3	61.0
60대	18.9	1.5	79.6
70대 이상	2.9	1.8	95.3

자료 : 한국은행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1]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 등이 모두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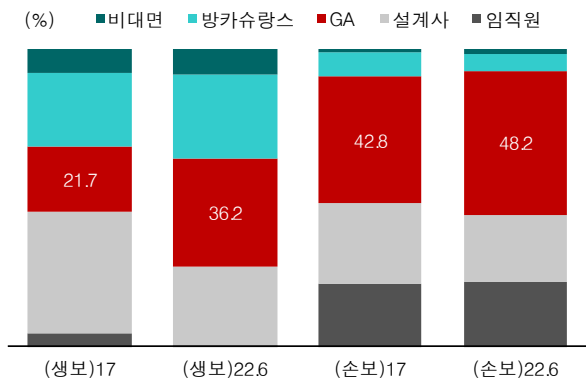
[2]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차별화, 특히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기존 장외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정내파생상품까지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 반면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채널 활용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이들 고객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채널을 활용할 필요
  - 60대 이상 고객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도는 젊은 층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
- 특히 상품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금융소비자의 대면 요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확대 차원에서 방문판매 채널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유언대용신탁 등 노후상품은 법무,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대면 설명이 요구

■ 특히 자문 수요 확대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는 GA, 투자자문사 등 비전속 방문판매 채널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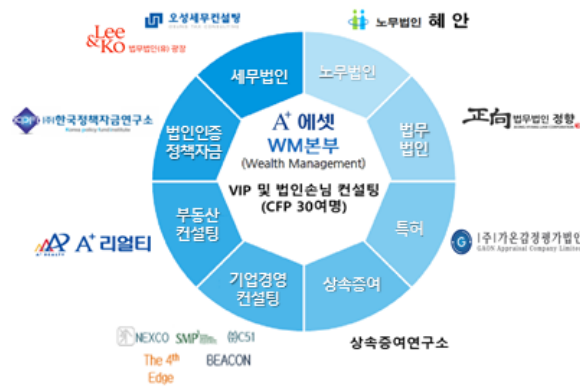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전속 설계사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GA 소속 설계사 수는 크게 증가하는 등 비전속 채널의 영향력이 확대
  - '22년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4.9만 명으로 전속설계사 수(15.9만 명)를 초과
- 특히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기존 전속 설계사 조직을 분리하여 GA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보험시장의 제·관 분리가 빠르게 진행 중
  - 한화, 미래에셋 등 대형 생보사에서 전속설계사 조직을 GA 자회사로 분리
- 대형 GA의 경우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상호, 부동산, 헬스케어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 종합적인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사도 확대되는 추세로 자문 역량을 보유한 투자권유대행인을 활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독립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가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을 주도

■ 보험판매 채널별 비중 추이



자료 : 보험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협회

■ 대형 GA 사례 (에이플러스에셋)




자료 : 에이플러스에셋 IR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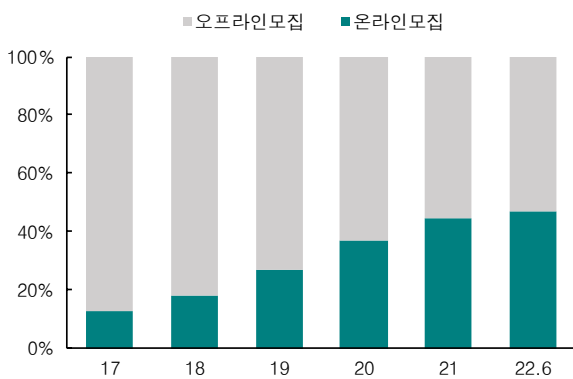
■ 한편 신용카드, 펀드 등 비교적 판매가 용이한 단순 금융상품의 경우 기존 방문판매 채널의 활용은 축소되고 이를 대체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

- 지급결제 산업의 디지털화와 가맹점수수료 축소에 따른 모집 비용절감 이슈 등으로 신용카드 신규 모집에서 온라인 채널의 활용이 활성화
  - 신규 카드 발급 중 온라인 모집 비중은 '17년 13%에서 ' 22.년 6월 47%로 크게 확대
- 또한 코로나19 이후 MTS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펀드의 비대면 판매 또한 증가
- 최근에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상품에서도 비대면 채널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주요 대출중개 플랫폼의 실적 확대
  - 조만간 온라인 비교 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등장 예정

■ 금융회사는 방문판매 채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더불어 관련 제도 정비에 대응하여 방문판매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 채널의 고도화로 영업점 채널의 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면 채널 니즈는 여전히 존재, 금융회사는 대면 채널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방문판매 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 특히 소비자의 상품 비교 니즈 확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전속 방문판매 채널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
- 이와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방문판매 관련 판매 절차 강화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
  - 내부 직원 대비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및 지원체계 구축 필수 

■ 신용카드 온라인 모집 비중 추이



자료 : 신문기사 참조

■ 주요 대출 중개플랫폼 실적 추이

		2020	2021	2022 상반기
토스	중개건수(건)	95,738	321,289	357,673
	대출금액(억원)	17,949	52,567	50,454
카카오페이	중개건수(건)	61,648	332,872	223,099
	대출금액(억원)	10,709	49,535	30,859
핀다	중개건수(건)	15,456	155,526	131,682
	대출금액(억원)	3,854	24,599	18,638

자료 : 신문기사 참조

## 유럽, 디지털플랫폼 기반 ETF 투자 확산

박지홍 연구위원

유럽 ETF 시장은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내 젊은 개인투자자들의 디지털플랫폼 기반 ETF 투자가 확산되고 있다. Trade Republic, Scalable Capital 등 소위 네오브로커(neobroker)라고 불리는 디지털플랫폼들이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국내 ETF 시장도 고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이들의 잠재적 요구까지 확인하여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 전통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해 온 유럽 ETF 시장

- 유럽 ETF 시장은 2022년 AUM 기준 약 1.4조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6.5조달러)에 이어 2번째로 크며,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기관투자자 중심 시장
  - 미국은 개인투자자의 40% 이상이 ETF를 활용하나, 유럽은 10~20% 수준으로 추정
-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이유로는 이들이 자기주도형 투자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중개인이 리베이트 수수료(restrocession fee)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
  - 유럽 개인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상품 추천 및 중개인(은행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자기주도형 투자방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관심도도 떨어짐
  - 또한, 중개인은 ETF와 같은 저비용(low-cost) 펀드보다는 리베이트 수수료가 많이 책정된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 유인이 커 ETF 시장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 최근 유럽 내 젊은 개인투자자들의 디지털플랫폼 기반 ETF 투자가 확산 중


- 독일을 중심으로 젊은 투자자들의 디지털플랫폼 기반 자기주도형 투자(self-directed investing)와 ETF 저축플랜(saving plan) 가입이 크게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
  - ETF 저축플랜은 투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하나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하는 정기 투자 상품으로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급증
  -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확산으로 독일 ETF 시장이 유럽 내 가장 큰 규모로 성장
- 이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이들의 ETF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에 따른 것
  - BlackRock은 향후 10년내 1,000만 명의 유럽 신규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산이 '26년까지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Europe's digital investment platforms raise ETF demand", FT, 2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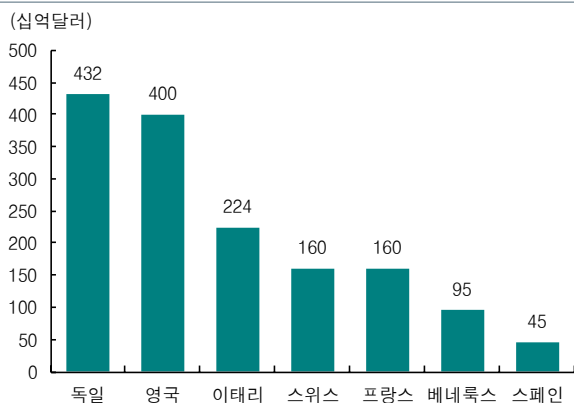
■ Trade Republic, Scalable Capital 등 네오브로커들의 디지털 플랫폼이 트렌드 주도

- 네오브로커는 온라인(주로 모바일) 기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라이선스 없이 기존 증권사, 은행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주식, ETF, 파생상품,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제공하며, 거래 수수료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기술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 **(Trade Republic)** 2015년 설립된 독일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으로 '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17개국 100만명 이상 고객 확보
  - 주식 거래수수료가 비싼 독일에서 1유로의 거래 수수료만 받는 것으로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 주식 및 ETF의 소수점 매매 서비스도 출시
- **(Scalable Capital)** '14년 설립된 독일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이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체로 유럽 내 유료 구독서비스 고객 수 60만명 이상 확보
  - 자사 플랫폼 내 투자자 3명 중 2명이 ETF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내 ETF 시장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바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상품·서비스 전략 요구

- 국내 ETF 시장은 '23년 3월말 자산가치총액 기준 약 90조원 규모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 50% 수준에 육박
  - 그동안 기관투자자 중심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확대
-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기관투자자와 달리 초보투자자부터 전문투자자까지 투자자 풀이 확대되고 투자 니즈도 보다 더 다양화될 전망
- 국내 금융회사들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이들의 잠재적 요구까지 확인하여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투자 편의성(UI/UX) 제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발굴 등 네오브로커들이 유럽 시장에서 시도하여 성공했던 다양한 사례를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할 필요 

■ 유럽 내 국가별 ETF 운용자금 (2021년 AuM 기준)



주 : 베네룩스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을 의미  
 자료 : Blackwater Search & Advisory, ETF Stream

■ Trade Republic vs Scalable Capital

구분	Trade Republic	Scalable Capital
설립	2015년	2014년
주요 비즈니스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온라인 증권거래 및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주요 상품	주식, ETF, 가상화폐 등	주식, ETF, 펀드, 암호화폐, ETP 등
수수료	거래 1건당 1유로 (ETF 저축플랜 제외)	①구독서비스 이용 시 거래 수수료 무료, ②로보어드바이저는 총 투자금액의 0.4%
특징	사전에 설정한 주기, 금액에 맞게 자동으로 ETF에 투자하는 ETF 저축플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범위별로 3가지 가격 정책 제공 (무료, 월 2.99유로, 월 4.99유로)

자료 : 각 사, Investing in the web

## 애플 예금계좌, 금융산업 지각변동 신호탄?

김지현 연구위원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연 4.15%의 고금리 예금계좌를 출시했다. 아이폰과 앱스토어 등 기존의 강력한 애플생태계와 브랜드 충성도가 결합해 금융시장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애플은 간편결제와 송금서비스, 신용카드를 잇달아 출시하며 결제시스템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며, 예금상품까지 출시해 금융서비스 영역 확장에 성공했다. 애플 외에도 다양한 테크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해 혁신금융을 리드하고 있으며, 은행은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연 4.15%의 고금리 예금계좌를 출시하며 은행시장 진출<sup>1)</sup>

- ‘애플’이 애플카드 이용자 대상으로 런칭한 고금리(4.15%) 저축계좌는 美 저축예금 평균 금리(0.37%)의 10배, 대형은행의 약 30배~400배 수준의 높은 금리 수준
  - 웰스파고와 BofA의 연 예금금리는 각각 0.15%, 0.01%~0.04% 수준
- 동 상품은 최소 예금 등 별도 요건은 없으나 최대 예금잔액은 25만 달러로 골드만삭스의 은행 라이선스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애플 월렛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으며 월렛을 통해 잔액 확인 및 수수료 없이 자금 인출 가능
- 전세계 20억명의 고객을 보유한 애플과의 협업으로 골드만삭스는 애플이용자를 자사 은행 채널로서 이용하며 신규고객 유입을 통해 소매금융 부문 개선 효과 기대

### ■ SVB 파산 후 은행 신뢰도 하락 중 애플의 예금 출시로 美 은행의 고객 이탈 우려 증가


- 애플은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와의 시너지까지 더해 금융생태계에 대한 애플의 파급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
  - 갤럽 조사에 따르면 美 소비자의 27%가 주거래은행에 만족하고 있으나 1979년 조사에 대비 33%p 하락한 수준이며, JP모건이 은행으로 유일하게 브랜드 인지도 Top 25 기업에 포함됨
- 아이폰과 맥북 등 애플의 하드웨어와 애플뮤직, 애플 TV, 아이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금융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돼 고객 락인 효과 기대
-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중소형은행의 신뢰도 하락으로 소비자 예금 인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애플의 고금리 저축상품 출시로 美 은행의 고객 이탈 우려 증가

[1] "Apple Launches Savings Accounts with 4.15% Interest Rate", WSJ, 2023.4

■ 애플이 구축하는 금융생태계는 결제를 넘어 은행업까지 확대되며 향후 행보에 주목

- 애플은 디지털지갑을 시작으로 모바일결제시스템, 개인송금서비스, 신용카드까지 출시하며 핸드폰내 모든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생활 편리성 중심의 금융생태계를 구축
- 선결제 후지불(BNPL) 결제상품과 저축상품 출시로 모바일 송금·결제영역을 넘어 은행 여·수신서비스까지 런칭하며 애플의 금융생태계 확장을 시도

■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속 은행은 고객기반 확대 위해 빅테크와 전략적 제휴 강화 필요

- 빅테크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은 이미 금융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며 금융산업내 비중을 넓히고 있어 은행 고객의 이탈 우려는 지속되어 왔음
  - 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 현황 : Google의 지급결제서비스, Amazon의 단기운용 자금대출 서비스, facebook의 간편결제서비스, Paypal의 개인 및 기업대출서비스, Uber의 당좌계좌 체크카드·모바일 뱅킹 앱 서비스 등
  - 국내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 현황 : 네이버의 지급결제, 신용거래서비스와 카카오의 지급결제 서비스, 예금수취, 신용거래서비스 등
- 하나은행 등이 네이버페이와 제휴해 페이머니 통장 등을 출시했으나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서비스 절차로 국내 빅테크와 은행의 제휴는 제한적
  -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협업은 2년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허가 필요
- 테크기업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플랫폼 지배력을 통해 금융영역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에 은행은 테크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 및 기존 고객 락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애플의 금융산업 진출 현황

서비스 명	출시연도	서비스 내용
애플 월렛	2012	디지털 지갑으로 앱카드, 멤버십, 신분증, 탑승권 등 사용·관리 제공
애플 페이	2014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애플 캐시	2017	선불형 지급수단으로 아이메시지와 애플 월렛을 통해 개인간 송금 가능
애플 카드	2019	골드만삭스와 제휴한 신용카드
애플페이 레이더	2023	선결제 후지불 결제 상품으로 구매 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애플 세이빙	2023	저축 예금계좌로 애플월렛을 통해 잔액 확인 및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
애플페이 먼슬리 페이먼트	미정	장기 대출 상품

자료 : 뉴스미디어

■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현황

	수신	신용 거래	지급 결제	클라우드 펀딩	자산관리	보험
구글	△		○			
애플	○	○	○			
페이스북			○			
아마존		○	○	○		○
알리바바	○	○	○	○	○	○
텐센트	○	○	○	○	○	○
라쿠텐	○		○		○	○
네이버		○	○		△	△
카카오	○	○	○		△	○

자료 : BIS,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금리: 은행권 불안 지속과 연준의 인상 중단 시사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근원PCE물가의 하방경직성에도 FOMC의 인상 중단 시사와 은행권 불안 재확산 등에 하락했다.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하락세 및 3%대로 둔화된 韓 소비자물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5월 FOMC는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며, 성명서 문구 변화를 통해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역대 최대 수준에 진입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추가 긴축 유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美 은행권 불안 완화 시 주요국 금리는 상방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 ■ 글로벌 금리는 고물가 경직성에도 은행권 불안 재부각·연준의 인상 중단 시사 등에 하락

- 美 23.1Q 성장률 둔화에도 GDP 내 견조한 소비 증가가 확인된 데 이어, 근원PCE 물가 및 ISM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물가의 하방 경직성 우려 가중
  - 美 GDP성장률/개인소비(% , QoQ 연율화) : 22.4Q 2.6/1.0 → 23.1Q 1.1/3.7
  - 美 근원PCE물가지수(% , YoY) : 1월 4.7 → 2월 4.7 → 3월 4.6 (예상 4.5)
- 한편, 대형은행들로부터 예금 지원을 받았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결국 파산 (JP모건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 내 중소 지역은행 중심으로 은행권 불안이 재확산
  - 특히, 팩웨스트 은행의 매각검토설 등이 대두되며 지역은행 관련 주가가 크게 하락
  - 美 다우존스 지역은행지수 : 4.30일 300.6 → 5.1일 290.3 → 2일 273.8 → 3일 267.0
- 5월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이 결정되었으며, 연준은 성명서 내 추가 인상 관련 문구 삭제를 통해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4.21일 4.18/3.58 → 27일 4.08/3.53 → 5.3일 3.84/3.34

### ■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하락세 및 3%대로 둔화된 韓 소비자물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 금통위 의사록 내 근원물가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가운데, 4월 국내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으나 근원물가는 여전히 더딘 둔화 속도를 기록
  - 한국 CPI/근원CPI (%) , YoY) : 1월 5.2/5.0 → 2월 4.8/5.0 → 3월 4.2/4.8 → 4월 3.7/4.6
- 한국 23.1Q GDP는 민간소비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했으나, 수출 부진은 지속
  - 한국 GDP성장률(% , QoQ) : 22.4Q -0.4% → 23.1Q 0.3% (블룸버그 예상 0.2%)
- 국내금리는 근원물가 우려 등에도 美 FOMC·은행 불안 재확산 등으로 인해 하락
  - 국고 3/10년 금리(%) : 4.21일 3.27/3.34 → 28일 3.29/3.36 → 5.4일 오전 3.22/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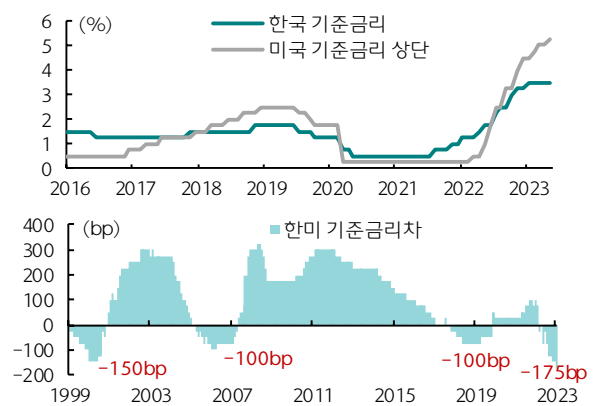
■ FOMC, 25bp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

- 5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함으로써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정책금리 최고치에 도달(목표상단 5.25%, 만장일치)
  - 양적긴축(QT)은 기존과 동일한 매월 최대 \$950억의 대차대조표 축소 방침을 유지
- FOMC 성명서 내에서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하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사실상 6월 회의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최근 은행권 불안으로 인해 이미 가계와 기업의 신용여건이 위축되었다고 평가
- 파월의장은 “추가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의미있다”라고 언급하며 인상 중단 가능성을 전달하는 한편, 연내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치 않음을 강조
  - 경기침체 위험이 높지 않은 반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 연준은 6월부터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할 전망이며, 기본 경로에서는 연말까지 동결이 예상되나 美 은행위기의 진폭 또한 상당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한은의 추가 긴축 유인은 크지 않으며, 美 은행권 불안 완화 시 국내외 금리 상방압력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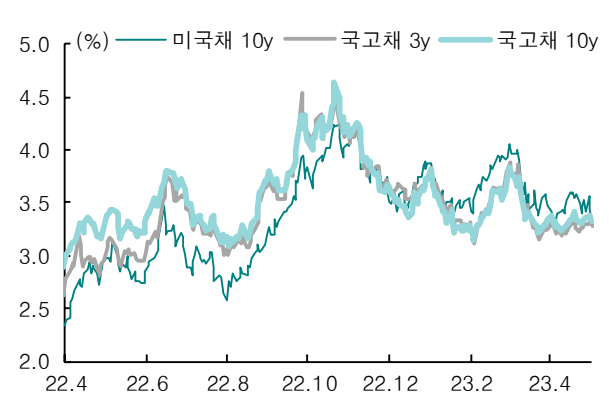
- 금번 美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175bp 역전)으로 확대되었으나 향후 인상 중단을 시사한 연준의 가이드선과 국내 경기·금융 리스크 등을 고려 시, 자금 유출 및 환율이 실제 급변하지 않을 경우 한은의 금리 인상 유인은 낮을 전망
- 5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차단에도 불구하고, 팩웨스트 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 위기설이 재차 불거지며 연준-시장 간의 시각차가 재확대됨에 따라, 향후 은행권 불안이 완화될 시 국내외 금리는 상방압력이 우세할 전망
  - CME Fedwatch(5.4일) : 채권시장에서는 올 7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을 기대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15%~3.40%, 3.20%~3.45% 범위로 전망 

■ 한-미 기준금리 및 내외금리차



자료 : Bondweb

■ 국내외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 Bondweb

## 외환: 美 통화긴축에서 재정·금융 불안으로 초점 이동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과 中 경기 기대 약화로 인한 위안화 약세,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엔화 약세 등에 연동되며 1,320원대 이상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5월 FOMC 이후 긴축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원/달러 상승압력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美 지역은행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 ■ [원/달러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발 위안화 약세 속 은행 위기 재점화로 불안 지속

- 원/달러는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1분기 GDP 성장률 1.1%)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불안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4일 연속 연고점 경신  
- 원/달러(고점): 1,337.1원(4.24일) → 1,337.2원(4.25일) → 1,340.5원(4.26일) → 1,342.9원(4.27일)
- 아울러 미·중 갈등과 中 경기 회복 기대 약화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엔화 약세 전환 등도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 대내적으로는 4월 무역적자(-26.2억\$)와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으로 환율 상승압력이 높아졌으나, 월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정부 개입 경계심 등은 상단 제한


### ■ [국제 환율] 물가 대응을 위한 ECB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유로화 강세 부각

- 달러화는 美 경제지표 부진 및 은행 불안 재점화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도 맞물리면서 하락  
- 연준은 5월 FOMC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25bp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성명서에서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간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 삭제
- 유로화는 독일의 소비자신뢰지수와 유로존 PMI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ECB 위원들의 금리인상 지속 발언도 이어지면서 강세 시현
- 엔화는 달러화 약세 및 美日 금리 격차 축소로 인해 강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BOJ의 통화완화 유지 결정(4.28일)으로 약세 전환
- 위안화는 반도체 및 대만해협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공업이익 감소(1~3월, 전년동기대비 -21.4%) 발표 등으로 약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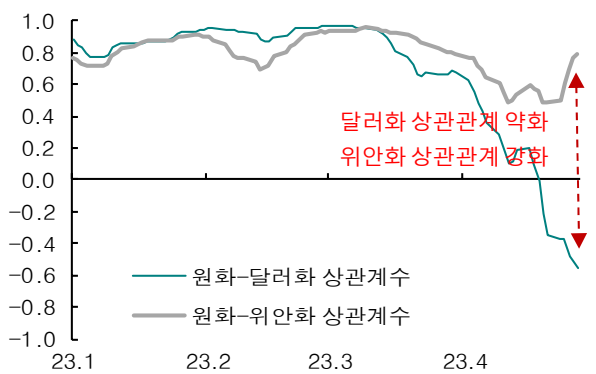
■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환율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

- 1.19일 美 정부부채가 '21년말 설정한 법정 한도(31.4조\$)에 도달하자 기금 재투자 중단 및 조기 상환 등 특별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한시적으로 유예
  - 옐런 장관은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정부가 더 이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시점, X-date)이 빠르면 6.1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디폴트 위험을 반영하여 美 CDS는 큰 폭 상승(1년물 기준 '22년말 16.53 → 5.2일 175.58)
  - 부채한도 협상 지연 등으로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2011년보다 높은 수준
- 협상이 지연될수록 X-date에 근접한 단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협상과정에서의 정부지출 삭감 등이 성장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 美 디폴트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나,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 확대
- 부채한도 협상 지연은 美 성장둔화 확대 및 통화긴축 제한 기대 등을 통해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융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는 달러화 강세로 연결될 수 있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위험에 유의

■ FOMC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국면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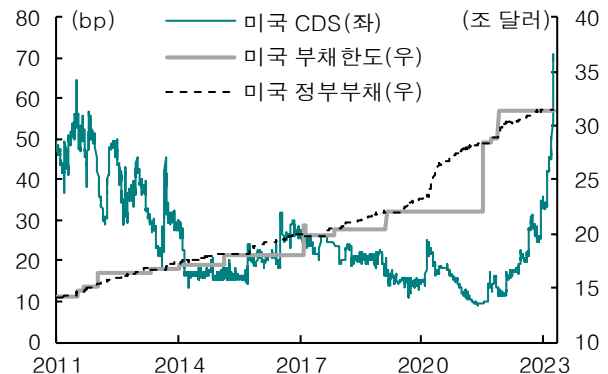
- 최근 달러화와 원화간 비동조화에도 불구하고 5월 FOMC 이후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 약세 폭이 확대될 경우 원화도 점차 강세 압력을 받을 전망
- 아울러 5월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줄면서(4월 8.8조원 → 5월 1.4조원) 역송금 수요가 약화되는 점도 원화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단, 美 지역은행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 이슈도 부각되고 있어 변동성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 1,280~1,360원에서 등락하며 불안정한 흐름 지속할 전망 

■ 원화와 달러화 및 위안화 상관관계수(30일 rolling)



자료: Bloomberg

■ 미국 CDS(5년물)와 정부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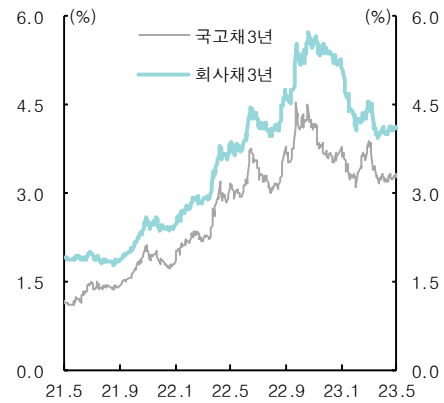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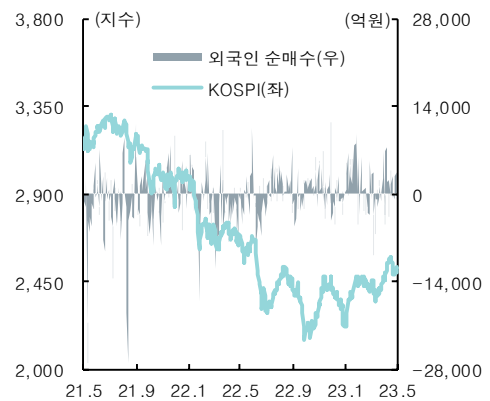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3월말	3.57	3.59	3.54	4.07	3.27	3.27
4월 26일	3.50	3.50	3.48	4.07	3.26	3.26
4월 27일	3.49	3.52	3.51	4.09	3.29	3.27
4월 28일	3.55	3.52	3.53	4.11	3.29	3.29
5월 2일	3.51	3.53	3.56	4.14	3.34	3.33
5월 3일	3.54	3.55	3.55	4.09	3.28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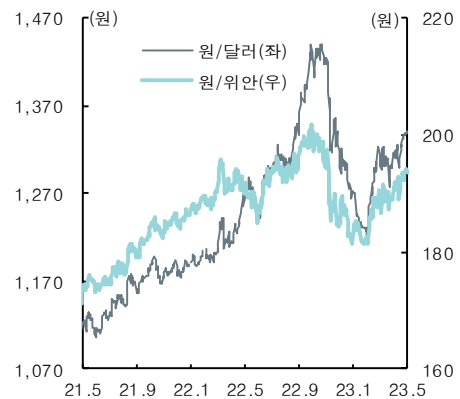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3월말	2,476.9	129,034	723	6,877
4월 26일	2,484.8	123,975	1,089	-925
4월 27일	2,495.8	111,421	733	2,801
4월 28일	2,501.5	140,248	778	2,978
5월 2일	2,524.4	99,424	701	3,448
5월 3일	2,501.4	98,659	890	-914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3월말	1,301.9	980.6	189.5	1,411.4
4월 26일	1,336.3	999.6	192.9	1,475.0
4월 27일	1,338.0	998.4	193.3	1,475.2
4월 28일	1,337.7	981.3	193.5	1,473.7
5월 2일	1,342.1	982.7	194.1	1,476.2
5월 3일	1,338.2	993.0	193.6	1,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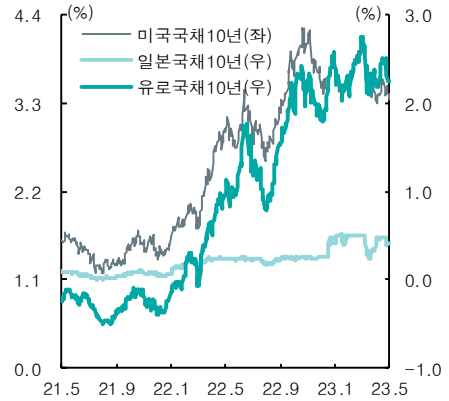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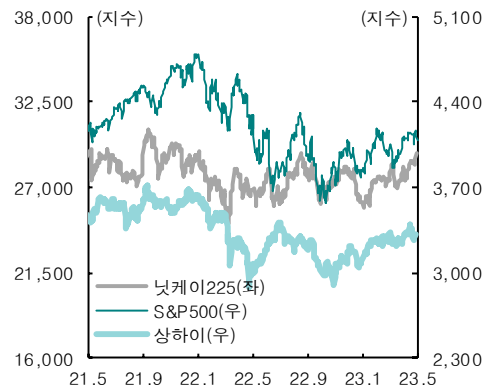
###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3월말	4.83	4.91	4.03	3.47	0.35	2.29
4월 26일	4.83	5.05	3.95	3.45	0.47	2.40
4월 27일	4.83	5.04	4.07	3.52	0.47	2.46
4월 28일	4.83	5.08	4.01	3.42	0.39	2.31
5월 2일	4.83	5.11	3.96	3.42	0.42	2.26
5월 3일	-	5.06	3.80	3.34	0.42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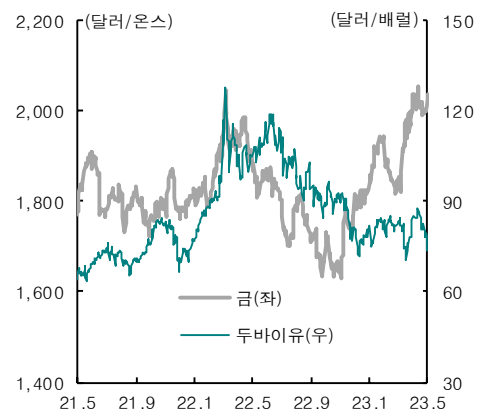
###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3월말	4,109.3	28,041.5	3,272.9	4,315.1
4월 26일	4,056.0	28,416.5	3,264.1	4,347.7
4월 27일	4,135.4	28,457.7	3,285.9	4,358.1
4월 28일	4,169.5	28,856.4	3,323.3	4,359.3
5월 2일	4,119.6	29,158.0	-	4,294.9
5월 3일	4,090.8	-	-	4,310.2



###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3월말	132.76	1.084	84.1	2,000.4
4월 26일	133.65	1.104	80.3	1,996.0
4월 27일	133.97	1.103	78.0	1,999.0
4월 28일	136.31	1.102	79.7	1,999.1
5월 2일	136.52	1.100	78.6	2,023.3
5월 3일	134.67	1.106	73.7	2,037.0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1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5월 4일 인쇄

2023년 5월 8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1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